행정도시 첫마을 국제설계경기의 의미와 파급 효과

도시건축 분야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충남 연기군에 조성되는 행정도시 첫마을 사업은 기존의 밀어붙이기식 도시 개발과는 차원이 다르다. 정부가 국내 최초의 국제설계경기를 통해 계획 단계에서부터 입체적인 조성을 고려한 혁신적인 개발 방식을 도입한 것. 지난 9월 1일 첫마을 사업의 당선작이 선정됨에 따라 드디어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윤곽이 드러났다. 글 김동호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주택기획팀장

1등 당선작

2등 당선작

3등 당선작

지난 9월 1일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시범사업인 첫마을 사업의 마스터 플랜 수립을 위한 국제설계경기가 당선작 발표와 함께 성황리에 종료됐다. '첫마을' 사업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선도하는 최초의 프로젝트이며,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국제설계경기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했다. 우선 대규모 주거단지(34만평, 주택 7000호)의 국제설계경기는 이전의 단위 건축물이나 몇 개의 블록 정도의 소규모 설계경기가 아닌 하나의 주거지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설계경기와는 차원이 다르다.

또한 기존의 설계경기들은 대부분 토지이용계획과 실시계획이 수립되고 부지 형태나 용적률, 건축 유형 등 각종 설계지표들이 미리 결정돼 있는 상태에서 시행됐다. 따라서 경기 진행은 쉬운 편이었으나 계획의 폭이 좁아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출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 하지만 첫마을 국제설계경기는 이러한 측면에서 건축가의 자유로운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충분히 유도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예를 들면 각종 설계지표를 최소화해 설계경기 참가자가 복합적인 용도의 건물들을 자유롭게 배치하도록 하고, 공동주택 설계시 주거 유형, 용적률, 층수 등을 탄력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연구했다.

그 결과 이번 설계경기에는 건축, 도시 계획 전략, 자연 지형 등 각기 다른 관점에서 다양한 개념의 디자인을 도입한 혁신적이고 우수한 작품들이 대거 출품됐다. 한국의 기존 주거단지와는 다른 중정형, 연도형, 테라스 하우스, 타운 하우스, 방사형의 보행자 녹도(綠道) 등 다양한 단지계획 및 주거 유형을 선보였다. 전반적인 작품 수준이 우수했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에서는 당선작 외에 이례적으로 한국의 주거단지 개발에 참신한 아이디어 제공의 가능성이 있는 2개 작품을 장려상으로 추가 선정하기도 했다.

다양한 이벤트가 가능한 복합 기능의 작품이 1등으로 당선 돼

국내외 저명한 건축가와 도시계획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첫마을 국제설계경기 1등 당선작으로 김종국팀의 'Weaving the Program, Constructing the Ground' 를 선정했다. 형태적인 아이디어를 명확히 한 부분이 높게 평가됐다는 것이 심사위원회의 평가다. 1등 작인 김종국팀의 'Weaving the Program, Constructing the Ground (디자인된 일상, 구축된 대지)' 는 '열린 터' 라는 공간 개념을 제시해 다양한 이벤트를 담을 수 있는 복합 기능 공간을 계획했고, 방사형의 축과 비정형의 건축물로 3차원 도시 공간을 재구성했다. 다양한 모습으로 연출되는 혁신적인 건축 설계를 통해 자연과 조화된 입체적인 주거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자 했던 노력이 엿보인 작품이다. 2등은 김영준 팀의 'Collective Formation', 3등은 조성용 팀의 'The city of Devenir', 장려상은 피에르 아우렐리(이태리), 토마스 푸쳐(오스트리아)팀의 작품이 뽑혔다. 2등은 김영준팀의 'Collective Formation', 3등은 조성용팀의 'The city of Devenir', 장려상은 피에르 아우렐리(이탈리아), 토마스 푸쳐(오스트리아) 팀의 작품이 뽑혔다.

획일적인 개발 방식을 탈피한 국제설계경기

이번 설계경기는 기존의 획일적인 개발 방식을 탈피하고 계획 단계에서부터 입체적인 조성을 고려한 혁신적인 개발 방식을 도입하는 계기가 됐다. 지금까지 도시 개발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을 수립한 이후에 입체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했다. 따라서 평면적 · 입체적 계획의 효율적 연계 부족으로 계획이 변경돼 시간이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많았다. 아파트 위주의 단조롭고 획일적인 경관을 양산한 배경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런 의미에서 첫마을 사업은 기존 지형의 훼손을 최소화한 자연친화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을 지향한 모범적인 주거지로 조성된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첫마을 국제 설계경기가 각종 도시개발에 혁신적인 개발 방식을 도입하는 계기가 되며 도시건축 분야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총 34 만평 규모의 첫마을 사업은 당선작이 선정됨에 따라 오는 11월 개발구상안을 마련하고 내년 7월 착공에 들어간다. 분양은 2009년 6월이다.